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 서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71 호 현대불교  
2008년 3월 19일(음력 2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말없이 행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 사랑!

### 변치 않을 사랑을 하고 싶어요

**문** 행복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더 나은 조건과 형상이 다가오기만 한다면 지금의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사람을 언제든지 버리고 더 나은 상대에게 갈 수 있는 제 자신 안의 이기심을 보았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형제에 대한 사랑도 애인에 대한 사랑도 조건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바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생의 마음인지요? 진정한 변치 않을 사랑은 할 수가 없는 것인지요?

**답** 그래서 항상 '착을 때라, 때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착을 두지 마라, 또는 형제에 착을 두지 마라, 부부에 착을 두지 마라 하는데, 착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착을 떼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뿌리를 심심하게 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는 어떠한 것이냐?

물질과 보고 착을 둔다면 절대로 그것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되기 때문에 정말이지 부처님 법이란 죽는 것보다도 더 진하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집착을 두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에 진짜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적으니까 아니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도 물질을 보고 사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때에 따라서 별이를 못해 온다거나 또 가정에서 부인이 아파서 드러누웠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아주 밤에 딱딱 채일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점차적으로, 불쌍하고 참 안됐다는 생각은 그치 않지만 결국은 나중엔 가서 '어서 그저 고생하지 말고 죽었으면...'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또, 벌이는 못하고 내내 몇년 간 놓아 보십시오. '저거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점차적으로 애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사랑을 알려면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렵다.' 하는 것이 같이 들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상대를 두고 나를 두고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물론 물질로서 상대는 상대대로 있지요. 일부러 같이 아니라고 생각 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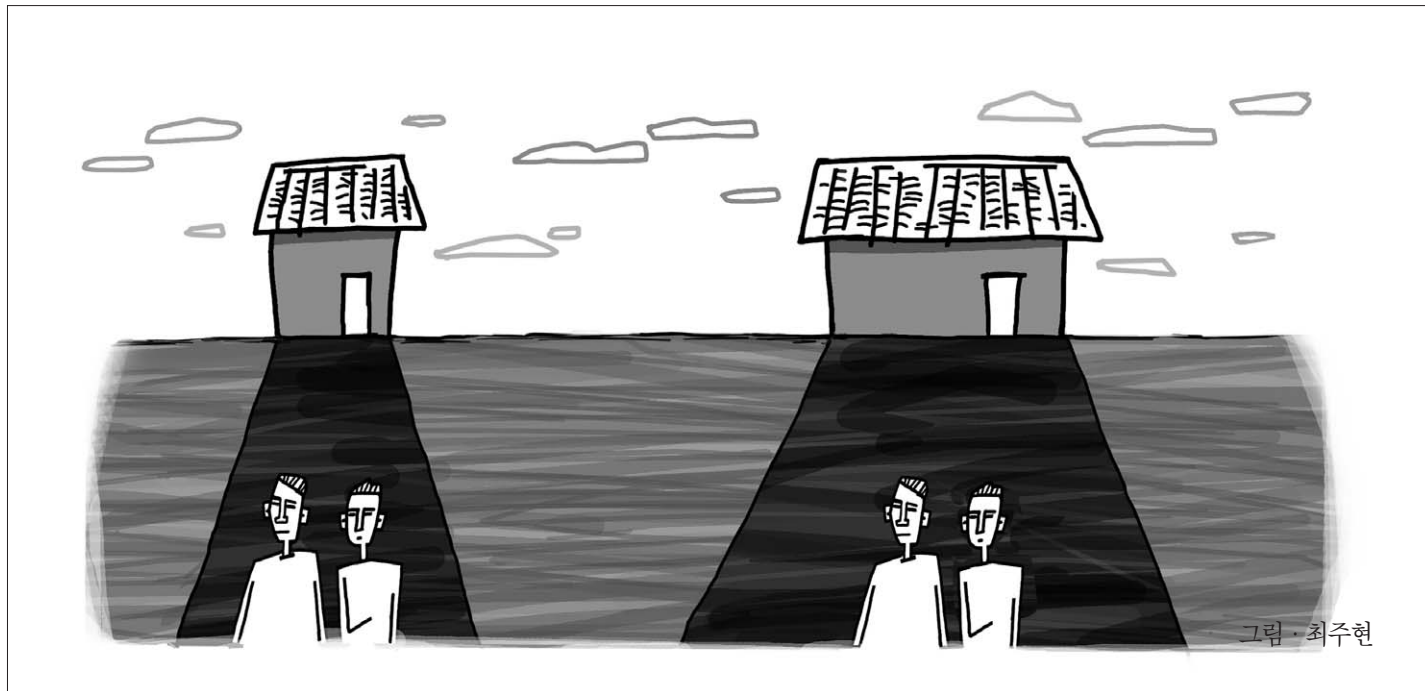


그림 최주현

떠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인연이 돼서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자식이나 부모 자식, 그 상대와 더불어 이게 얼마나 착이 붙어 들어가 있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착을 떼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려는 거죠.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사랑한다는, 또는 거기에서 착을 두고서 잊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할 텐데...' 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내대로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쌍방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자랄 때까지 아주 부모를 그리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러다가 어느 때 홀연히 자기가 자랄라고 자기가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예전처럼 그렇듯 없고 은연중에 떨어집니다. 그 착이 떨어지는데, 다시 늙으면서 또 다시 그림습니다.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그리운 겁니다. 부모가 되고 늙어 가고 한다면 자기 그 부모를 다시 한 번 어린애가 되듯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때에 가서 또 그림습니다.

당해 보지 않을 사람은 모를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부모를 그

리는 마음,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건 쪽 계속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건 계속해서 여념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자식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부모는 항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듯이 그러한 마음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 육신을 붙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활력을 넣어 줘야 몸과 마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마련하고 간단 합니다. 그 몸을 붙들면 어떻게 하면 잘못 들어갈 수가 있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몸은 놔두고 항상 마음도 아예 펼쳐 놓는 겁니다. 펼쳐 놓되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가는 데에 그 자식이 가고, 그 자식이 가는 데에 내가 가는데 왜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애 탄지 탄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아! 형제가 단 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은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물질의 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애길 했습니다. '언제 형제가 있었는가. 너의 형제는 벌써 이미 죽었고 너의 형제는 없느니라.' 하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뿐만

아닙니다. 오만치도 차이가 나지 않고 여러분과 똑같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그 모습을 바꿔서 바꿔서 이년까지 짐차 바꿔서 나왔습니다. 바꿔 나오는 동안에 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습을 바꿔서 갔다 놓으면 그 집 식구인 줄 알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면 저 집 식구인 줄 안다 이겁니다. 전자에 살던 인연은 아예 까맣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바로 바서는 그렇게 뒤섞이다 보니 내 형제가 아닌 것이 없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없고 전체 이것은 내 남편 내 부인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깊고 깊은 줄은 정말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예전에 덜컥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여쭙게 끌고 온 나의, 바로 내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비교한다면, 그러면 내가 내 부모를 생각하듯이, 고아로서의 자식이 생각하고 찾는 그 마음, 또 부모가 자식을 잃고 찾는 그 마음이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내가 수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나오면서 나오게 된 그 동기를 볼 때 근본적인 부모, 그리고 그 근본처 부모는 멀리 있나 하고 찾았더니 금세 항상, 그 모습을 바꿔 가면서 수없이 거듭거듭 이렇게 모습

을 바꿔 왔는데도 수없이 따라서 같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 가짜 사랑만 알고 진짜 사랑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피가 한 방울이 흐르게 되면 강을 때우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의 눈물이란, 그런데 그 모습, 물건 아닌 진짜는 바로 여기 한 줄에 꿰어 있는데 왜 바깥으로 착을 두느냐 이겁니다. 그 모습을 따라 두느냐 이거예요. 진짜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거를 알면 바깥으로 그 모습을 찾아서 사랑하느니 뭐 하느니 그거 안됐느니 됐느니 하고 방황하고 다니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직하고 아주 태연하고, 태연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참 뜻뜻하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뜻뜻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것은 자기가 같이 꿰어져 있건만 자꾸 마음이 달아나니까 모습이 자꾸 방황하게 되고 같이 혼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습도 같이 돌아가지만, 동체지만 이 마음이 동심이 때문에 그 동심의 근본체가 바로 각자 수없이 거듭거듭 해 나온,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그 부모인 것입니다. 그 래 그 부모를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 근본처의 참나하고 지금 현대의 나와고 같이 아니어서 항상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바로 이 공부로 하셔야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 사랑 사랑'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만 불편하면 사랑한다는 소리가 쪽 들어가고요. '넌 나하고 살 수가 없어.' 하고 나오니까. 이걸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덮어 주고 서로 자기 맘으로 둘러싼 모두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장애자가 돼서 밥을 떠 놓아 할 지경이 된다면 하더라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그런 이치가 생깁니다.

그러니 사랑이 아닌 자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가 될 줄 아십니까? 자비는 사람들, 서로를 모두 편안하게 해 주면서 서로 고통을 면하게 해 주는 겁니다. 고통을 면케 해 주면 스스로 편안하겠죠? 그것이 바로 자비예요. 알뜰하게 입술에 붙여 가지고 사랑 사랑 하는데 그런 사랑은 진짜 사

26면으로 계속

**재단법인 한중원 금강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총본산: 경남 통영시 용봉사

본 종단은 금강경을 소의 경전으로 하고 부처님 정법을 널리 흥보하고 각 사.庵의 재산권은 주지가 책임지고 총무원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함.

■입종구비서류  
- 입종신청서(총무원 비치, 요청 시 팩스 혹은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2통  
- 승적서류, 타종단 승려증 사본 2통  
- 사찰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각 2통  
- 여권용사진 5매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각 한장씩

\*입종시 사찰등록증, 주지명장증, 승려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예비승·행자모집  
- 구비서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서류전형후 면접)

■처사·공양주 하실 분 모집  
- 문의처: 재단법인 한, 중, 원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  
- 주 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740번지  
TEL 055)649-5959 / FAX 055)649-5974  
- 담 당: 총무국장 011-857-1865

**총무원장 혜명 합장**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 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기력으로 능력이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기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교육기간 2일(매월 1회·토, 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교육기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재(박희준)는 번역가·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웠던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인터넷: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민국 제2회 맥(脈)수련회**

1. 21세기 인류의 문제와 진리의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  
2. 한국의 鮮脈사상을 연구해 국내외에 보급하고자 하는 분. (한국선, 진영명리, 육합풍수지리, 전통한방원론, 천부경, 도덕경...)  
3. 한국전통민방요법을 연구해 향토명의로 되고자 하는 분.  
4. 유전정보에 의한 유전자(DNA) 컨트롤에 의하여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만들수 있는 원리강론  
5. 세계에 맥사상을 보급해 자신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분을 정중히 초대하오니 우리와 함께 그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맥수련 안내  
일 시: 2008년 3월 29일(토) ~ 3월 30일(일) 1박 2일 (매월 마지막 토·일요일)  
장 소: 충남 공주시 상신리 "자승정" 수련장  
초청강사: 白石 박 경진 선사님 (참선지도 25년 경력, 관련서적 40여권 집필)  
주 제: 세계적인 鮮脈 지도자가 되는 길  
주 최: 日脈大學教  
참가비: 10만원(입학금 10만원)  
교육문의: 043)283-2278 / H.P 010-9701-0675  
장소문의: 041)881-9575

日脈大學教는 대한민국의 선맥을 보급하는 21세기 세계적인 지도자 100명을 양성하여 국내외에 파견할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진리의 전당입니다.

**命 (九星氣學) 星**

자신自身을 살리고 죽이는 상생상극相生相剋 천중상天中敎. 간지비법卦支秘法

○구성 간지지법  
○구성실례(비법·비방) 공개  
○구기성(九星學)으로 보는 년운(年運)

이 책 한 권으로 자신의 운명 바이오티드를 알게 되고, 직업과 적성, 동업 관계, 재물을 얻는 시기, 집 장만, 결혼, 연애, 섹스, 부부 상생 상극 관계, 시험 합격, 이혼, 재혼, 자식 번영, 택일, 이사 등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특히 간지점사(干支占事) 비법은 100% 효율이 발휘된다.

양장본 / 812쪽 / 39,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창간 10주년**